

# 항공시장 진출 기반 마련

### 전북도, 민간항공기 객실 경량복합재 좌석 개발 사업 선정

전북도는 탄소복합소재의 항공분야 시장진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민간항공기 객실의 경량복합재 좌석 개발 사업이 11일 산업부 2019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민간항공기 객실의 경량복합재 좌석 개발 사업은 기존 민간항공기 객실의 급속재 좌석을 경량복합재 좌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지난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TIP)에 수요조사를 제출하여 선정된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및 항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북도과학기술위원회에서 항공분야 탄소복합재 산업위원회를 통해 본 과제를 기획했고 사업 타당성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산업부 신규 지원대상 과제로 반영되었으며, 올해 진행된 공모절차를 통해 11일

최종 선정됐다. 항공산업 발전과 항공 수요 증가로 항공기 실내 부품시장은 2016년 기준으로 26억달러 규모이며 매년 8% 이상 성장세로 22년경에는 약 39억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중 항공기 좌석 시장은 약 7억달러 규모로 2022년에는 약 12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항공기 실내 부품은 가볍고 우수한 복합재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동안 항공기 실내 부품중 복합재 적용이 더디었던 좌석 분야도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기업에서 상용화가 진행 중에 있다.

기존 항공기 좌석의 무게는 개당 16킬로그램으로 복합재를 적용시 개당 4킬로그램의 무게를 감량할 수 있어 비행기 1대당 약 800~1,200킬로그램의 화물을 더 적재하거나 연료비도 절감하는 등 운송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종현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사무총장은 탄소융합 시장에서 항공부품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학기술위원회(탄소분과)에서 시장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항공기 좌석 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했으며 지난해 선정된 항공기 원형 복합재 수리공정기술 개발 사업(12억원)과 올해 민간항공기 객실의 경량복합재 좌석 개발 사업이 함께 추진됨에 따라 탄소융합소재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노옥 도 탄소융합과장은 사업의 가치를 계기로 "국산 탄소융합소재 기술이 항공기 부품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항공산업은 인증 기준이 까다롭고 시장에서 신뢰성 확보에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국산 항공기 복합재 좌석이 국제인증 취득과 시장진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우리 함께 살자” 11일 전주시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중소상인과 최저임금노동자 함께 살자 기자회견이 실시된 가운데 전북소상공인대표자협의회 회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러시아·우즈베크에 농기자재 진출기회 찾는다

### 농식품부,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권기훈, 이하 북방위),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가 힘을 모아 우리 농기자재 기업의 신북방 시장 진출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1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농업협력포럼'을 시작으로 13일(현지시간) 한·우즈베크 농업비즈니스 상담회(다이얼로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KOTRA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수출 유망한 국내 농기자재 회사 총 30개사를 모집했으며, KOTRA는 수출상대국으로 부터

현지 바이어를 초청하고 우리 기업과의 상담을 주선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동안 러시아·우즈베크기스탄 등 북방경제권 국가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광활한 농지, 기업진출 환경의 점진적 개선으로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언어 장벽과 현지 정보 부족 등이 해외 진출의 주요 장벽이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제1회 한·러 농업 비즈니스 상담회(다이얼로그)' 진행했고, 11월에는 KOTRA가 추진한 '중앙아·러시아 농업협력플라자'에서 신북방 지역으로의 우리기업 진출방안을 논의하는 등 진출 희망기업의 현지 교류에 힘써 왔다. 행사에서는 농식품부와 북방위에 서 지속가능한 농업협력방안과 신북방 정책을 소개하고, 이어 러시아·우즈베크기스탄 정부에서는 농업 투자지원 제도

및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11일 한·러 농업협력포럼에는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참여, 자국의 농업정책과 농산업투자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행사 이튿날에는 참가기업들에게 '우즈베크 농업박람회, 한·우즈베크 농기계 R&D 센터' 등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농기업들의 현지 농업상황에 대한 이해도 높여줄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 우수 농기업을 해외네트워크 부재, 언어 장벽 등으로 해외 농산업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사를 통해 국내 기업이 생산한 다양한 제품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와 교역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농식품부, 신북방 수출시장 진출 위한 전략 마련 착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신북방 시장의 이해 및 수출물류 활용방안'을 주제로 신북방 농식품 수출전략 포럼 2차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신북방 농식품 수출전략 포럼은(이하 포럼)은 미개척시장인 신북방 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수출전략을 마련하고자, 농식품부·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정부와 학계·연구기관·수출업체 등 전문가 14인으로 구성했다. 포럼은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미·관 협동 수출확대 정책의 성공을 거둔 경험을 살려 신북방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5월 23일 양재 aT센터에서 14인의 위원과 함께 발족하여 정부의 신북방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공유하고, 포럼의 운영방향 및 논의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북방 시장의 이해 및 수출물류 활용방안을 주제로 독립국가연합(CIS)의 정치·경제 및 시장의 이해, 신북방 지역의 물류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좌장(회의영 교수)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연계한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3차 포럼은 6월 25일 수출업체 간담회 형태로 극동지역 물류허브로 기대되는 부산에서 진행되며,

포럼위원 외에도 부산·경남지역 20여개 수출업체가 함께 참여한다.

마지막 4차 포럼은 7월 23일 러시아 농식품 시장의 역학관계와 경쟁기업을 분석하고, 중앙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에 구성된 신북방 농식품 수출전략 포럼은 수출업체와 각계 전문가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기반을 모색하고자 출범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포럼에서 만들어진 전략이 정책의 근간이 되어 현장 농업인과 수출업체가 신북방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태 기자

# 도 - 전건협 전북도회, 새만금 고속도로 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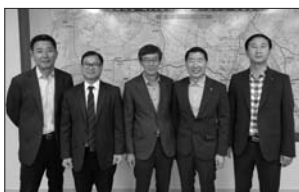
전북도와 대한전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새만금 고속도로 공사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대한전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김태경 회장과 전라북도 이희승 건설지원팀장은 11일 한국도로공사 새만금 전주건설사업단 강만기 단장을 방문,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확대 및 지역

의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경 회장은, 대형국책사업의 부재와 민간공사 부진 등으로 발주물량이 부족하여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계의 상황을 알리고 한국도로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도내 시, 군 및 대형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건설공사 수주물량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전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가 함께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 군산 명소 새만금에!

### 비응공원 일대서 '도지사배 연합라이딩대회' 16일 팡파르

새만금에 자전거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모인다.

11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2019 도지사배 연합라이딩대회가 오는 16일 새만금 비응공원 일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전북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하고 도 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 400여명이 출전한다.

자전거연맹은 이 대회를 통해 2023년 세계 캠퍼리 대회가 열리는 새만금을 비롯해 '신선이 노닐던' 선유도의 자전거 코스를 널리 홍보하고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시킬 계획이다.

또 전국 자전거동호인의 우호증진은 물론이고 자전거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건강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당일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 진행 될 예정이며, 경기장

코스는 38km(돌고래쉼터~선유도해수욕장~돌고래쉼터)이다.

순위에 중점을 두는 대회가 아닌만큼 전국 동호회(팀)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동호회 중심으로 시상할 계획이다.

최병선 전북자전거연맹 회장은 "전국 자전거 동호인과 교류를 통해 새만금과 선유도 등을 자전거여행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며,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대회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